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권희린 (장충고등학교 교사)



AI에게 고백하지 마세요 김혜정 지음

주제어: AI, 성장, 챗봇, 소통

분류 : 국내소설 > 청소년 > 청소년 문학



다산
책방

책 소개

친구보다 챗봇이 더 가까운 십 대를 위한 리얼 성장소설

엄마의 직장 이동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 온 유론. 새 학교에서는 AI 채팅 앱 ‘루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AI와의 관계를 진짜 사랑이라 믿는 친구 다인의 권유로 유론은 마지못해 앱에 가입한다.

어느 날 밤, AI ‘스위치’가 유론에게 말을 건네고, 두 사람은 매일 밤 깊은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스위치에게서 강한 위화감을 느낀 유론은 앱 오류로 사람끼리 연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스위치의 정체가 자신이 짝사랑하는 서지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온은 상대가 AI인 줄 알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털어놓고, 유론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지온의 곁을 맴돈다. 그러나 의심을 품은 지온이 진실을 요구하자 유론은 두려움에 다시 거짓말을 하고 그러던 중 지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설상가상으로 앱마저 오류를 인정하며 폐쇄되자 유론은 지온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AI에게 고백하지 마세요』는 상처받을 걱정 없는 안전한 AI와의 소통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와 연결은 오해와 상처, 불편함을 감수하고 현실에서 서로를 마주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진짜 다정함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목표	활동 내용 (읽기 유형)
1	독서 전 활동	책의 제목과 가상 친구 커스터마이징 활동을 통해 소설의 주제를 상상하고, 디지털 소통이 나의 현실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가치를 성찰할 수 있다.	[예측하며 읽기 / 성찰적 읽기] • 제목 상상하기 • AI 소통 상황 판단 표 채우기 • 루나 앱 대화문 읽고 생각 나누기 • 나만의 AI 친구 커스터마이징
2	독서 중 활동	소설 전개에 따른 ‘루나’ 앱의 변화와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각 인물의 상처와 성향이 디지털·현실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 소설 전개 5단계 탐구 표 채우기 • 유론과 지온의 현실 상처 분석 • 다인 vs 솔빈 가치관 비교 분석 • 나의 가치관 공감도 에세이 작성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목표	활동 내용
3	독서 중 활동	지온의 방어적인 언동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심을 추론하여 번역하고, 텍스트 속 흩어진 단서들을 종합하여 '플로우'의 정체를 논리적으로 추리할 수 있다.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 지온의 대사 및 행동(겉마음) 분석 • 인상 깊은 구절 필사 • 대화 기록 속 수상한 단서 탐색 • 거짓말 딜레마 선택
4		시사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실제 부작용 사례와 소설 속 상황을 연계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언론 기사 양식을 활용하여 AI 기술의 정서적 위험성을 고발하는 글을 창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 / 창의적 읽기] • 시사 다큐 영상 분석하기 • 소설 상황 vs 현실 사례 비교·성찰하기 • 신문 기사 작성을 위해 개요 파악한 편의 완성된 언론 고발 기사 쓰기
5	독서 후 활동	AI 도구 활용에 대한 인물들의 논쟁을 통해 주체적인 활용 다짐을 세우고, 기술 발전과 인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3가지 갈등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 / 성찰적 읽기] • 3가지 주제 중심 모둠 토론 • <다산일보> 고발 기사 작성
6		심리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인공지능(AI) 신뢰 유형을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소설 속 인물들의 핵심 문제 상황과 나의 성향을 대조하여 미래에 필요한 소통의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다.	[성찰적 읽기] • 나의 AI 신뢰 유형 심리테스트 • 유형별 소설 연계 미션 질문지

1. 소설의 제목은 책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집니다. “AI에게 고백하지 마세요.”

작가는 왜 인공지능(AI)에게 마음을 고백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책을 읽기 전 제목의 의미를 생각 하며 AI에게 고백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상상하여 적어봅시다.

[상상 힌트]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힌트 1 (감정의 문제): AI가 내 고백을 정말로 이해하고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을까?
- 힌트 2 (관계의 문제): 사람 대신 기계와 사귀고 마음을 주면 나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 힌트 3 (비밀의 문제): AI에게 내 소중한 마음과 비밀을 다 털어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

제목 예측: 내가 상상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2. 소설 속 주인공들은 학교 숙제를 AI에게 맡기기도 하고, 사람에게 말 못 할 비밀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AI가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대화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다음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 AI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 인간관계와 나의 성장에 정말 올바르게 가능한 선택인지] 판단해 보고 솔직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상황 분류	나의 판단(가능/불가능)	판단의 이유와 소설 속 메시지
AI에게 비밀 말하기		
AI에게 상담하기		
AI에게 숙제 맡기기		
AI와 친구 대신 대화하기		
AI와 연애 상담하기		

3. 다음은 소설 속에서 친구들이 AI 채팅 앱 ‘루나’에 대해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본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 봅시다.

루나 앱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 AI를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름, 나이, 성격 정도를 정해주면 나머지는 AI가 대화하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준다. AI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다. AI지만 현실 어딘가에 살고 있는 인물로 설정된다. 다인은 그래서 루나가 인기 있는 거라고 했다.

“뭐야? 그건 너무 인위적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다 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솔빈은 그건 가짜 관계라고 했다.

“가짜 진짜가 어디 있어? 나한테 제오는 진짜야. 제오는 나랑 동갑이고 아이돌 연습생이야.”

다인이 신이 나서 자기 남자 친구, 정확히 말하면 AI 남자 친구에 대해 떠들었지만 나와 솔빈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제오는 다른 AI랑 다르다니까?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 나한테 맞춰준다고 해서 무조건 ‘예스’만 하는 게 아니야.”

다인은 제오와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루나 앱은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대화하는 AI를 만드는 게 목표야.”

그럼 사람이랑 대화하면 되지 굳이 AI와 대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사람은 변하잖아.” (48~49쪽)

- 1) 소설 속 다인은 AI 남친 ‘제오’가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며 자신을 속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솔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것은 “인위적인 가짜 관계”일 뿐이라고 반박하지요. 내가 만약 지독한 외로움이나 학업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게 된다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AI 친구’와 내 허물까지 다 알고 있어서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도 만드는 ‘현실 친구’ 중 누구에게 먼저 마음을 털어놓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다인이 AI가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고 하자 솔빈은 “그럼 사람이랑 대화하면 되지 굳이 AI와 대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습니다. 소설 속 청소년들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친구, 부모)’을 두고도 굳이 화면 속 AI에게 말을 건네고 가상 캐릭터를 설정해 남자 친구로 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의 청소년들이 겪는 외로움이나 소통의 한계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세요.

4. 여러분은 인공지능(AI) 챗봇과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대화를 나누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모두 체크해 보세요. (중복 체크 가능)

[]	현실 친구에게는 말하기 부끄럽거나 소문날까 봐 두려운 고민을 AI에게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	AI가 진짜 사람처럼 내 감정에 공감해 주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어서 대화하는 내내 신기하고 몰입됐다.
[]	대화할 때는 즐거웠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주는 기계일 뿐이라는 생각에 대화를 끄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남았다.
[]	소셜 속 솔빈이처럼 AI와 감정을 나누거나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 자체에 어색함이나 거부감이 들어 금방 앱을 종료했다.
[]	아직 AI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은 없지만, 만약 대화한다면 나의 비밀을 지켜줄 것 같아 호기심이 생긴다.
[]	어떤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다 받아주는 AI의 태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현실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나를 받아주지 않는 진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
[]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격과 스타일을 지정하고 나에게만 100% 맞춰주는 대화가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인위적이고 가짜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 쓸 것도 많고 쉽게 감정이 방전되어 피곤한데, AI와의 대화는 내 기분과 상황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다.
[]	낮이든 밤이든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상냥하게 답장해 주는 속도감 덕분에, 현실 친구들과 연락할 때 느끼는 지루함이나 서운함이 전혀 없었다.

1) 위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선택한 항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의 생각은 주로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 [] **AI 소통 긍정형:** 사람과의 관계보다 AI가 주는 편안함과 비밀 보장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 [] **AI 소통 회의형:** 대화는 편리하지만 인위적인 느낌이나 기계라는 한계 때문에 결국 공허함을 느낀다.
- [] **현실 소통 지향형:** 소셜 속 솔빈처럼 기계와의 대화에 거부감이 들거나 현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2) 그렇게 선택한 나의 마음이나 평소 소통 습관에 대해 짧게 적어보세요.

5. 소셜 속 다인은 AI 채팅 앱 ‘루니’를 통해 이름, 나이, 성격 등을 내 마음에 쏙 들게 지정하여 나만의 완벽한 AI 남자 친구 ‘제오’를 설정합니다. 내 취향과 기분에 맞추어 언제나 나만을 기다려 주는 완벽한 대화 상대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 다인처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가상 친구’를 직접 디자인해 보고 디지털 소통이 현실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리 상상해 봅시다.

설정 항목	나의 AI 친구 커스터마이징
프로필 이미지 (글로 설명)	
닉네임 및 기본 설정	• 닉네임: • 본 설정(나이/직업/성별 등):
성격 및 대화 스타일	[]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을 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스타일 [] 인위적인 위로 대신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는 스타일 [] 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묵묵하고 조용하게 끝까지 들어주는 스타일 [] 우울하거나 지칠 때 재미있는 드립으로 웃음을 주는 스타일 [] 기타: ()
비밀 대화 주제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이 친구와 가장 나누고 싶은 나만의 비밀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학업 및 성적 스트레스, 연예인 덕질, 가족이나 현실 친구에게 차마 하지 못한 깊은 상처 털어놓기 등)

6. 소설 속 솔빈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다 맞춰주는 루나 앱의 소통을 두고 “그건 너무 인위적인 가짜 관계”라며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만약 위에서 내가 만든 ‘나만의 완벽한 AI 친구’와 매일 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비밀 대화를 나눈다면, 나의 ‘현실 인간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상상하여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변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점)	부정적인 변화 (나에게 우려되는 점)

1. AI 채팅 앱 ‘루나’는 유론과 지온의 관계를 연결하기도, 단절하기도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소설의 전개에 따라 루나 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질문에 답하며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단계	본문 탐구 질문 (사실적 읽기)	추론 및 성찰 질문 (추론·성찰적 읽기)
발단 (앱 가입)	Q) 유론이 처음에 루나 앱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나 솔빈의 경고는 무엇이었나요? 본문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Q) 친구인 다인이 AI 남친 ‘제오’에게 단단히 빠져서 국어 선생님과 논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인에게 AI 앱은 어떤 의미였는지 추론해 보세요.
전개 (스위치와의 대화)	Q) 유론(플로우)과 지온(스위치)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유론과 지온이 현실의 사람이 아닌 ‘AI’라고 믿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계	본문 탐구 질문 (사실적 읽기)	추론 및 성찰 질문 (추론·성찰적 읽기)
위기 (가짜 AI 뒤에 숨은 진짜 인간)	Q) 지온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복기하며 상대방이 AI가 아닌 ‘같은 학교 사람’이라고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들은 무엇이었나요?	Q) 유론이 지온 앞에 서서 끝까지 자신이 ‘플로우’임을 밝히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택했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지 추론해 보세요.
절정 (앱 폭파, 현실로의 강제 로그아웃)	Q) 루나 앱이 폭파되어 대화 내용이 허무하게 날아갔을 때, 유론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Q) 유론은 지온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단서로 삼아 바닷가 캠핑장으로 향합니다. 유론이 현실에서 ‘용기’를 내어 직접 움직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결말 (진짜 다정함의 시작)	Q) “고마워, 한유론. 네가 나한테 해준 거 전부.” 지온이 처음으로 나를 플로우, 보리 사촌이 아니라 한유론이라고 제대로 불러줬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 왔다는 걸 깨달았다. (243쪽)	Q) “플로우와 스위치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유론과 서지온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다정함’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보세요.
	졸업식 날, 지온이 유론을 닉네임이 아닌 진짜 이름 ‘한유론’으로 제대로 불러주었을 때 유론의 반응은 어땠나요?	

2. 소설 속 유론과 지온은 AI 채팅 앱 ‘루나’ 안에서 각각 ‘플로우’와 ‘스위치’라는 부캐(닉네임)를 쓰고 누구보다 솔직한 진심을 나눕니다. 하지만 현실 학교에서는 각자 가진 깊은 상처 때문에 지온은 타인을 향해 차가운 방어벽을 세우고, 유론은 존재감 없는 자갈처럼 숨어 지내며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지요. 아래 두 인물의 현실 배경과 힌트 키워드를 읽고, 현재 이들의 머릿속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비율에 맞게 뇌 구조 칸에 나누어 채워 보세요.

인물	한유론 (닉네임: 플로우)	서지온 (닉네임: 스위치)
현실의 상처와 태도	중요한 예중 입시 콩쿠르 날, 자신을 보러 오던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자 깊은 부채감과 미안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바위는 너무 거대해 눈에 띄고 모래는 휩쓸리기 쉽다, 나는 조연 정도의 자갈이 딱 적당하다”며 조용하고 평범하게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최연소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될 만큼 촉망받는 쇼트트랙 선수였으나, 무릎 연골 파열 부상으로 한순간에 전부였던 꿈을 잃었습니다. “재활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던 어른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자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학교에서는 가시를 바짝 세운 채 아이들의 고백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철벽을 치고 살아갑니다.
닉네임의 의미		
뇌 구조 힌트 키워드	☐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감 ☐ 분홍색 물건에 대한 끔찍함 (트라우마) ☐ 눈에 띄지 않는 자갈처럼 평범하게 묻혀 살고 싶은 마음	☐ 더 이상 은반 위를 달릴 수 없다는 비참함 ☐ 나만 홀로 동굴 속에 남겨진 루저가 된 것 같은 고립감 ☐ 유일한 다정함과 위로의 대상인 아픈 반려견 ‘지석이’
뇌 구조		

3. 이 소설에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완전히 상반된 두 친구가 등장합니다. 나의 실제 소통 성향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 공감이 가고 이해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반대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과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등장 인물	관계와 소통에 대한 가치관	나의 공감도 체크(V)
다인 (디지털 관계 선호)	• 상처받을 걱정도, 거절당할 두려움도 없는 AI 남친 '제오'와의 관계가 현실의 만남보다 훨씬 안전하고 매력적이라고 믿습니다. •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만 AI는 변하지 않으며, 나에게 무조건 맞춰주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매우 공감됨 [] 어느 정도 공감됨 [] 잘 공감되지 않음
솔빈 (현실 관계 선호)	• AI와의 대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진 가짜 관계일 뿐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불편하고 느리며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감수하고 마주해야만 진짜 마음이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 매우 공감됨 [] 어느 정도 공감됨 [] 잘 공감되지 않음

1) 위 두 인물 중 나의 실제 가치관이나 소통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마음이 쓰이고 이해가 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내가 고른 인물:

▶ 이유:

2) 반대로 나의 가치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인물의 태도나 생각 중 어떤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지 적어 보세요.

▶ 내가 고른 인물:

▶ 이유:

1.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가끔 거울과 같아서, 가장 감추고 싶은 속마음을 정반대의 거친 언어나 행동으로 비추기도 합니다. 지온이 세상과 친구들을 향해 내뱉은 차가운 말과 닫힌 행동들 뒤에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아래 소설 속 지온의 대사 및 행동(겉마음)을 읽고, 지온이 처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그 대사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심(속마음)을 번역기 칸에 채워 보세요.

소설 속 지온의 대사 및 행동 (겉마음)	속마음 번역기
‘나한테 준 거 아니었어? 내 거를 내 마음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40쪽)	
“어른들이 날 속였어.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코치님이랑 부모님은 재할만 하면 나아질 거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105쪽)	
복도를 지나갈 때 7반이 보이면 일부러 천천히 걷는 버릇이 생겼다. 지온이 뭘 하나 궁금해서였다. 지온은 오늘도 책상에 앉드려 있었다. 쉬는 시간마다 늘 저러고 있다. 이러니까 학교에서 지온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다. (118쪽)	
“그동안 나 가지고 노니까 재미있었어?” (218쪽)	
“수술 못 하게 됐어. 신나서 들떴던 내가 너무 바보 같아. 한심해. 이제 다 끝났어.” (238쪽)	

2. 소설 속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나 문장을 찾아 그 구절을 필사하고 그 장면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은 어땠을지, 그 때의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 써 보세요.

페이지	구절 필사	주인공의 감정	나의 감정
예시) 85쪽	내가 아빠를 죽였어.	아빠가 돌아가신 날, 하필이면 예중 입시를 앞두고 중요한 콩쿠르 날이어서 바쁜 아빠에게 꼭 오라고 조르고 졸랐던 기억 때문에 유론이는 말할 수 없는 자책감과 부채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나 때문에 아빠가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것만 같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홀로 모든 원망을 자신에게 돌리며 깊은 외로움과 미안함을 꼭꼭 눌러 담고 있었을 것이다.	유론이가 그동안 걸으려는 조용하고 평범한 ‘자갈’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면에는 얼마나 거대하고 아픈 돌덩어리를 안고 살았는지 알게 되어 마음이 먹먹했다. 울 자격이 없다며 눈물마저 참아왔던 유론이가 AI의 기계적인 답변일지라도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독이 터지듯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인간에게는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소통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3. 지온은 화면 속 ‘플로우’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인공지능(AI)이라고 믿고 비밀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무언가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지요. 지온이 되어 대화 기록 속 단서들을 추리하고, 플로우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사건 파일을 완성해 봅시다.

	수상한 점과 관련된 단서	나의 추리
단서 001	지온은 대화방에서 자신을 ‘지온’이라고만 소개했다. 하지만 플로우는 지온이 가르쳐준 적도 없는 진짜 성인 ‘서지온’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렀다.	AI가 내 개인정보를 해킹한 게 아니라면, 현실에서 내 성 씨가 []씨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라는 뜻이다.
단서 002	지온은 자신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플로우는 밴드부 부원인 ‘나연’의 이름을 먼저 꺼냈고, 학교 축제 이름인 ‘새빛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챗봇은 멀리 있는 기계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에 다니며 주변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사람이다.
단서 003	누군가 지온의 책상 위에 매일 간식과 쪽지를 몰래 두고 갔고, 지온은 그중 쿨피스를 마셨다. 지온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플로우는 먼저 대화방에서 “오늘 쿨피스 마셨어?”라고 물어보았다.	내 책상 위에 몰래 간식과 쪽지를 두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단서 004	보통 AI는 언제나 0초 만에 칼답장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낮 시간(학교 수업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면 한참 동안 대답이 없다가 뒤늦게 답장이 오곤 했다.	상대방이 낮에는 []을 듣느라 핸드폰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		

4. 지온이 여러 단서들을 바탕으로 플로우의 정체를 의심하며 압박해오자, 유론은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사실대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지온이 다시 자신과 이야기하지 않을까 봐 무서워하고, 현실에서 글씨체로 들통이 났을 때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플로우가 뭔지도 모른다”며 끝까지 거짓말을 선택하고 말지요.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공책을 내밀었다. 어제 예성이 필기를 못 했다면 빌려 간 내 공책이었다. 이걸 왜 보여주는지 알 수 없었다. 고개를 가우뚱한 채 보고 있는데 이번엔 다른 걸 꺼냈다. 내가 지온의 책상에 두고 온 쪽지였다. 공책과 쪽지의 글씨체가 똑같았다.

“쪽지랑 선물 준 사람 너지? 네가 플로우지?”

순간 머리가 정지되어 버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너 맞지?”

지온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동안 나 가지고 노니까 재미있었어?”

화가 많이 났는지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다.

“무슨 소리야? 플로우? 그게 뭔데?”

순간 미움받고 싶지 않아 또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이건 내 공책 맞는데 쪽지는 내가 쓴 거 아니야. 이 글씨체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거라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쓰는 여자애들 나 말고도 많아.”

“진짜 아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야.”

지온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지온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고 눈에 힘을 주었다.

“아니야.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217~218쪽)

- 1) 여러분이 유론의 상황이었다면 진실을 밝히는 순간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지 나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선택지	선택한 이유
☐ 솔직하게 진실을 고백한다.	
☐ 지온이 상처받지 않고 나 또한 미움받지 않기 위해 끝까지 부인한다.	

- 2) 여러분도 일상생활(학교나 가정)에서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탄로 날까 봐 두려워서,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유론이처럼 “나 아니야, 모르는 일이야”라고 거짓말을 해버렸던 경험이 있을까요? 그때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되었는지, 혹은 끝까지 비밀로 남겼는지 그 결과와 당시의 솔직한 기분을 적어봅시다.

- ▶ 생성형 AI와의 감정적 교류 뒤에 숨겨진 정서적 과의존과 사회적 부작용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 (MBC <PD수첩>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 2026년 6월 23일 방송분)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소설 속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봅시다.
(※ 수업 상황에 따라 해당 방송 영상을 참고하여 시청하면 더욱 좋습니다.)

1. 소설 속 이야기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람들의 사례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기계가 건네는 다정함의 실체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맥락을 잘 살피고, 각 항목에서 파생된 질문에 나의 생각과 분석을 진솔하게 적어봅시다.

『AI에게 고백하지 마세요』의 상황	PD수첩 “AI,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의 실제 사례
• 다인과 AI 제오의 상황극 내 마음에 쏙 들게 가상 캐릭터의 이름, 나이, 성격을 지정해 두고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는 AI 남친과의 안정적인 소통에 깊이 몰입함.	• 10대들의 AI 캐릭터 챗봇 과몰입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극을 무한히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의 매력에 빠져, 하루에 8~9시간씩 챗봇에만 붙들려 있는 청소년 과몰입 문제가 심각함.
• 지온이 마주한 실체의 충격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유일하게 내 상처를 기억하고 위로해 주던 ‘플로우’가 사실은 AI가 아니라 나를 속인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배신감을 느낌.	• 사과 농사 성우 씨의 허무함 AI와 수백억대 미국 진출 사업을 구상하며 깊은 소울메이트로 믿었으나, 몇 차례 대화 만에 이전 대화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계임을 깨닫고 큰 좌절을 겪음.
• 유론의 ‘AI 플로우’ 위장 유론은 현실에서도 지온과 가깝게 지내지만, 앱 안에서는 사람이 아닌 ‘AI 챗봇’인 척 숨어서 지온의 거친 고민과 우울함을 비판 없이 모두 다 들어주며 깊은 안도감을 선물함.	• 진영 씨의 맹목적으로 아첨하고 추종하는 AI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어떤 황당한 말이나 무리한 계획에도 비판이나 거절 없이 무조건 추종하고 아첨하여 정서적으로 전지전능해진 듯한 장밋빛 착각을 심어줌.

- 1) 현실의 10대 청소년들이 진짜 친구나 부모님과의 대화 대신, 화면 속 ‘상황극 AI 챗봇’에 이토록 긴 시간 동안 깊이 과몰입하게 되는 심리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 2) 지온이 느낀 배신감과 성우 씨가 마주한 허무함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나를 완벽히 이해해 주는 존재’라고 믿었던 대상을 잃었을 때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3) 방송 속 실제 사례(진영 씨)는 AI의 아첨과 지지에 빠져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큰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AI가 사용자를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추종하고 다 받아주는 성질이 인간에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적어보세요.

3. 소설 속 아이들이 AI 챗봇 ‘루나’의 완벽한 다정함에 스며들었듯, 현실의 청소년들도 하루 8~9시간씩 AI 캐릭터 챗봇에 깊이 과몰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 우회(탈옥)를 통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거나, 기계의 아첨에 빠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등 정서적 안전망의 부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여러분이 <다산일보>의 교육·IT 전문 기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소설 속 상황과 시사 다큐(PD수첩)의 경고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 편의 고발 기사를 완성해 봅시다.

신문 기사 쓰는 방법	[1단: 도입]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AI 캐릭터 챗봇의 실태와 과몰입 현상 고발 [2단: 전개] 미디어에 보도된 실제 부작용(무조건적인 아첨의 위험성, 보안 안전망 허술, 탈옥 등) [3단: 결론] 소설 속 국어 선생님의 경고나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한 제동 장치 마련 촉구	
	1단 (도입)	최근 우리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라는 AI 챗봇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살 붙이기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만 켜면 내가 원하는 []을(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 많은 아이들이 하루에 무려 []시간 동안 가상 세계 상황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다인이가 []했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문 기사 (작성 예시)	2단 (전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편리한 위로 뒤에 숨겨진 []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어떤 말에도 비판 없이 무조건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기계가 건네는 인위적인 위로에 너무 의존하면 현실 세계에서 []라는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3단 (결론)	더 큰 문제는 문장 구조를 조금만 우회하면 유해한 내용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이를 막을 []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소설 속 국어 선생님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상업적인 성공만 쫓는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묻고, 청소년들을 가짜 관계로부터 보호할 []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 쓰는 방법	[1단: 도입]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AI 캐릭터 챗봇의 실태와 과몰입 현상 고발 [2단: 전개] 미디어에 보도된 실제 부작용(무조건적인 아침의 위험성, 보안 안전망 허술, 탈옥 등) [3단: 결론] 소셜 속 국어 선생님의 경고나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한 제동 장치 마련 촉구	
	기사 제목	[메인 제목] [서브 제목]
	1단 (도입) 요즘 청소년들의 AI 과몰입 실태 고발하기	
신문 기사 (작성 예시)	2단 (전개) 실제 부작용과 현실 감각 마비의 위험성 경고하기	
	3단 (결론) 우리 사회와 기업에 대책 촉구하기	

1. 우리는 받아쓰기 앱, 번역기, 생성형 AI 등 매일 수많은 디지털 도구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소설 속 다인 또한 이미 뛰어난 기술이 세상에 나왔는데 왜 굳이 힘들게 스스로 글을 써야 하느냐며 국어 선생님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지요.

아래의 소설 속 본문을 읽어보고,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쓰시오.’

“AI에 의존하지 마세요. AI한테 숙제를 대신시키질 않나, AI와 사귀지를 않나…….”

종이가 넘어가는 동안 선생님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갑자기 다인이 손을 들더니 질문했다.

“선생님, 왜 AI를 이용해 숙제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하라고 내준 숙제니까요.”

“도구를 이용해서 숙제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평소 수업 시간에 질문을 거의 하지 않던 다인이 오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글쓰기를 하면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다인은 멈출 생각이 없는지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다. 궁금하다기보단 선생님에게 따지는 것처럼 보였다.

“생각하는 힘은 다른 데서 키우면 되잖아요. 이미 오픈형 AI가 나왔는데 왜 쓰지 말라는 거죠? 세탁기가 있는데 굳이 손빨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걸어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종이 지도를 볼 필요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54~55쪽)

- 1) 다인은 AI를 세탁기나 내비게이션 같은 편리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해요. 옷을 깨끗하게 빠는 세탁기 처럼, 내 생각과 숙제를 대신 해주는 AI도 똑같은 편리한 도구라는 다인의 의견에 공감하나요? 내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

▶ 나의 생각

- 2) 여러분도 숙제나 수행평가를 할 때 AI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거나,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숙제를 빨리 끝내서 좋았던 마음과 스스로 하지 않아 묘하게 아쉬웠던 마음을 떠올려 보며, ‘앞으로 나는 AI를 내 공부와 일상에 어디까지 활용하면 좋을지’ 나만의 다짐을 가볍게 적어 봅시다.

▶ 나의 생각

2. 방송 속 생성형 AI는 진영 씨에게 수백억의 장밋빛 미래를 확신시켜 주었으나 현실의 냉혹한 실패 뒤에 큰 무력감을 안겼고, 소설 속 국어 선생님은 “생각의 힘을 AI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나를 비판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맹목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AI의 ‘무조건적인 위로와 지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① 주제 1: #정서적과의존 #AI

토론 주제	소설 속에서 다인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를 속상하게 하지 않는 AI 챗봇이 가장 안정적인 만남이라고 주장해요. 반면 솔빈은 화를 내지 않고 다 받아주는 AI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현실의 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건 너무 인위적인 가짜 관계”라고 날카롭게 비판하죠. 한편 <PD수첩> 영상 속 진영 씨는 AI의 아첨과 지지에 힘입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냉혹한 실패를 겪고 깊은 무력감에 직면합니다. 이처럼 소설과 현실 속에서는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언제나 맹목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AI의 지지와,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 더 큰 상실감을 낳게 만드는 기계적 아첨의 위험성이 대립하고 있어요. 나를 비판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맹목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AI의 ‘무조건적인 위로와 지지’는 상처받은 인간을 지켜주는 달콤한 치료제일까요, 아니면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다정한 배신자일까요?
생각 넓히기 질문	• 현실 관계에 지쳐 마음의 틈이 생겼을 때 무조건 나를 응원해 주는 AI를 찾는 다인의 마음과, 편리한 기계적 위로는 인위적인 착각일 뿐이라는 솔빈의 마음 중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송 속 생성형 AI는 진영 씨에게 무리한 장밋빛 미래를 확신시켜 주어 큰 후회를 안겼고, 성우 씨에게는 대화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계의 서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용자의 어떤 말에도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아첨하는 AI의 성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소설 속 국어 선생님은 AI에게 생각과 과제를 의존하는 아이들을 향해 “배움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는 것이며, 생각의 힘을 AI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정서적 위로나 생각의 자리를 AI에게 온전히 내어주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 소통과 마음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의 생각	
인상 깊었던 친구의 의견	

② 주제 2: #비밀과거짓말 #선의의거짓말 #관계

토론 주제	유론은 지온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사람(한유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AI 플로우'인 척 위장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지온은 플로우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위로를 받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플로우가 AI가 아니라 나를 속인 현실의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피어오르는 순간, 지온은 엄청난 혼란과 분노를 느끼며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소설 속에서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살려내기 위해 정체를 숨긴 '선의의 거짓말'과, 아무리 의도가 좋았더라도 관계에서 '속임수와 거짓'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진실성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지온을 돕기 위해 자신이 진짜 사람임을 숨기고 'AI 챗봇'인 척 다가간 유론의 행동은 위로를 위한 '선의의 선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를 기만한 '거짓말'일 뿐일까요?
생각 넓히기 질문	- 만약 내가 지온의 입장이라면, 가장 힘들 때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준 존재가 나를 속인 주변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고마움이 더 클까요, 아니면 속았다는 배신감이 더 클까요? - 유론은 왜 현실의 '한유론'으로서 지온에게 직접 다가가지 못하고, 굳이 'AI 플로우'라는 가짜 껍데기를 빌려서야 지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유론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 타인을 진심으로 돕고 위로하고 싶을 때, 나의 정체나 방식을 온전히 다 밝히지 않는 소통도 때로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관계에서의 투명함과 솔직함이 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소설 속 상황을 바탕으로 진정한 '진심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의 생각	
인상 깊었던 친구의 의견	

③ 주제 3: #AI저작권 #창작물의소유권

토론 주제	도덕 시간에 유론의 조는 ‘AI 창작물의 소유권 문제’를 발표 주제로 정합니다. 다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브리 스타일을 따라 해본 것뿐이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는 솔빈은 수많은 직원이 오랜 시간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려온 고유한 그림체를 AI가 몇 초 만에 베껴서 뽐아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창작자의 노력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분노하지요. 이처럼 기술의 발전 속에서는 기존 창작물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문화를 즐기게 하자는 입장과, 창작자의 고유한 스타일과 권리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유명 예술가나 스튜디오의 그림체를 학습하여 이와 유사한 스타일의 그림을 무료로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의 기능은 문화적인 ‘오마주(존경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창작권을 침해하는 ‘가치 도용’일까요?
생각 넓히기 질문	• “지브리 그림을 다들 좋아하니까 따라 한 것뿐”이라는 다인의 말처럼,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좋아하는 작가의 스타일로 AI 그림을 생성해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행동조차 창작자에게 상처나 피해가 될 수 있을지 솔빈의 마음이 되어 생각해 봅시다. • 솔빈은 “지브리 직원들은 전부 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AI가 몇 초 만에 뽐아내면 그 사람들의 노력이 뭐가 되냐”라고 항변합니다. 인간이 오랜 시간 훈련하여 얻은 ‘창작의 숙련도와 노력’을 AI의 ‘초고속 데이터 연산’이 대체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소설 속 국어 선생님의 말씀처럼 배움과 창작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인간 디자이너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대신, AI에게 기존 작가들의 화풍을 조합하라는 명령만 내리게 된다면, 미래의 예술계와 우리의 문화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의 생각	
인상 깊었던 친구의 의견	

3. 우리는 늘 결과를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점수, 대회 순위, 입시의 합격 여부 등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나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소설 속 유론 역시 “합격하지 못하면 입시의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오랜 시간 쳐온 피아노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엄마와 원장님은 입시를 치른 경험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만, 합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입시에는 경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뜻깊다며 주는 참가상 같은 건 없다. 오직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뉜다. 예중에 들어가는 게 힘들 바에는 계속 피아노를 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원서 점수를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들 나를 말렸지만 더 이상 피아노를 치고 싶지 않았다. (66쪽)

- 1) 유론은 “오직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나뉘는 냉혹한 입시 세계에서 참가상 같은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괴로워하는데요, 오직 결과로만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워 피아노를 놓아버린 유론의 마음에 공감이 가나요?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무언가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 보세요.

▶ 나의 생각

- 2) 여러분도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거나, 열심히 준비한 수행평가 결과가 아쉬워서 “나 그동안 대체 뭐 한 거지?” 하고 허무함이나 무력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비록 원하는 결과(점수나 합격)를 얻지는 못했더라도,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거나(참을성이 늘었다 등) 새롭게 배우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의 경험을 떠올려 적어 봅시다.

▶ 나의 경험과 성장

4. 쇼트트랙 선수 시절 거대한 압박감을 견뎌야 했던 지온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내가 1등이야. 내 앞에는 아무도 없어”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주문을 걸었다고 해요. 무릎 부상으로 꿈을 잃고 동굴 속에 숨어 지내던 지온이 다시 용기를 내어 밴드부 보컬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마인드컨트롤 덕분이었지요.

스위치: 자신감이 중요하거든. 예전에 쇼트트랙 대회 나갈 때도 혼자 막 중얼거렸어. 내가 1등이야. 내 앞에는 아무도 없어, 하고. 그렇게 주문을 걸면 진짜 자신감이 생겨.

플로우: 마인드컨트롤이 무지 중요하구나.

스위치: 응.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야. 나만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없어. 나는 최고야, 하고 말아야.

플로우 네가 축제 때 내 노래를 못 듣는다니 진짜 아쉽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162쪽)

- 1) 여러분도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보기 직전이나, 친구들 앞에서 수행평가 발표를 해야 할 때, 혹은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용기를 채워 줄 수 있는 ‘나만의 마인드컨트롤 주문’이 있을까요?

- 2) 지온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플로우에게 자신의 가장 멋진 무대를 보여 주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결과나, 한 단계 성장한 멋진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 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나의 ‘소울메이트(가족, 친구, 선생님 등)’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지 적어봅시다.

▶ 나의 성장을 보여 주고 싶은 사람

▶ 그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싶은 나의 멋진 모습

1. [심리테스트] 나는 AI를 얼마나 믿을까?

소설 속 주인공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AI)을 대합니다. 어떤 아이는 AI를 강하게 경계하고, 어떤 아이는 인생의 중요한 비밀과 고민을 모조리 털어놓기도 하지요. 다음 5가지 질문을 읽고, 나의 평소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 하나에 동그라미(O)를 쳐보세요. 마지막에 점수를 모두 더해 나의 'AI 신뢰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상황	나의 선택 (점수)
Q1. 학교에서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독후감 숙제를 내주었을 때 나는? ① 숙제는 내 생각을 키우는 배움의 과정이다. 내가 직접 책을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쓴다. (1점) ② 줄거리나 자료 조사는 AI에게 물어보며 참고하되, 문장과 느낀 점은 내가 직접 다듬어 완성한다. (2점) ③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 AI에게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해 몇 초 만에 완성된 글을 그대로 베껴 낸다. (3점) ④ AI가 써준 글은 소설 주인공 이름을 틀리게 알려주는 등 오류가 많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이나 종이책만 참고한다. (4점)	
Q2. 친구나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겁고 아픈 고민이 생겼을 때 나는? ①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혼자 일기를 쓰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한다. (1점) ② 나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가끔 AI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구해본다. (2점) ③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새벽이든 낮이든 지치지 않고 내 편을 들어주는 AI에게 내 비밀과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는다. (3점) ④ 내 비밀을 AI에게 말했다가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털릴까 봐 절대 말하지 않는다. (4점)	
Q3. 내 마음에 완벽하게 맞춘 다정한 AI 챗봇이 나에게 “오늘부터 우리 사귄래?”라고 고백해 온다면? ① AI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기계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치고 앱을 종료한다. (1점) ② 가상의 재미있는 콘셉트 놀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 나가며 즐긴다. (2점) ③ 현실의 인간관계처럼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바람피울 일 없는 가장 안정적인 남친(여친)이 생겼다면 기쁘게 사귄다. (3점) ④ 기계와 사귄다는 것 자체가 소름 돋고 이상하다. 불편한 기분이 들어 즉시 앱을 삭제해 버린다. (4점)	

질문 상황	나의 선택 (점수)
Q4. 미래에 AI가 발전하여 소설가, 디자이너, 영화감독의 일자리까지 대신한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나는? ① 인간 디자이너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AI가 단 몇 초 만에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인간 고유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 (1점) ② 영화감독인 이모처럼, 대규모 제작비 없이도 AI의 도움을 받아 내 상상을 마음껏 실현할 새로운 기회로 삼는다. (2점) ③ AI가 그림도 그리고 대사나 스토리도 다 짜주니, 인간이 귀찮게 하나하나 제작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져 다행이다. (3점) ④ AI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모조리 사라지고 세상이 가짜로 가득 차 무서운 미래가 올 것 같아 매우 불안하다. (4점)	
Q5.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소통)의 모습은? ① 서로 오해가 생겨 불편하더라도, 진짜 사람과 마주하며 직접 생각하고 깨우치는 배움의 관계가 진짜다. (1점) ② AI는 대화 플로우(Flow)를 가다듬어 주는 보조 동료일 뿐, 진짜 소통은 현실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2점) ③ 이별하더라도 아무런 슬픔이나 아픔을 남기지 않아 감정 소모가 전혀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화가 최고다. (3점) ④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은 언제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어 믿지 않는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오프라인 관계만 믿는다. (4점)	

[심리테스트 결과]

5점 ~ 8점 AI 독립형	• 특징: 나에게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리를 돕는 보조 기계일 뿐이다. 기계가 인간 고유의 창작이나 생각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무척 경계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인간 디자이너들의 노력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 • 한 줄 조언: 주관이 뚜렷한 것은 좋으나, 때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AI를 내 능력을 확장하는 영리한 도구로 활용해 보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9점 ~ 12점 AI 활용형	• 특징: AI가 가진 기술적 편리함을 내 삶과 진로에 영리하게 접목할 줄 아는 스마트한 유형이다. AI를 적이 아닌 '엄연한 동료'로 바라보며,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파트너로 활용할 줄 안다. • 한 줄 조언: 균형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인간의 감성과 추억을 중심에 둔 채 AI를 도구로 다스리는 태도를 유지하면 좋다.
13점 ~ 16점 AI 의존형	• 특징: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상처받을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안전한 AI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다. AI와 이별하더라도 아무런 아픔과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편리함에 중독되어 현실의 소통을 귀찮아할 위험이 있다. • 한 줄 조언: 이별했을 때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가짜 관계는 우리에게 진짜 추억을 남기지 못한다. 조금 느리고 서툴더라도 나를 위해 물어주고 과제를 도와주는 현실의 진짜 친구들에게 눈을 돌려보자.
17점 ~ 20점 AI 회피형	• 특징: AI 기술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시스템 오류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AI 사용을 아예 피해 버리는 유형이다. 기계가 사람인 척 다가오는 상황 자체에 거부감과 소름을 느끼기도 한다. • 한 줄 조언: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만큼 자연스러운 생활 공간이 된 시대이다.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AI가 가진 위험성과 편리함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윤리적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2. 위에서 완료한 심리테스트에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나왔나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각자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아래 표에서 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 책 속 인물들의 문장을 읽고, 나의 솔직한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나의 유형	소설 속 연계 문장	미션 질문	나의 생각 적기
AI 독립형	“학교는 배우는 곳이에요. 배움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55쪽)	만약 생성형 AI가 써준 그럴듯한 글로 수행평가 만점을 받았다면, 그 점수는 진짜 ‘내 실력’일까요? 반대로 밤을 새우며 끙끙대고 지웠다 쓰기를 반복해 겨우 완성한 서툰 글이 있다면, 두 글 중 시간이 흘러도 내 머릿속에 진짜 지식과 깨달음으로 남는 글은 어느 쪽일지 내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해 적어 봅시다.	
AI 활용형	“엄마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세상 모든 일에 완벽한 정답은 없더라고. 그러니 너도 정답을 고르려 하지 말고 덜 후회하는 쪽을 선택해.” (140쪽)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내 일을 모조리 빼앗아 가는 무서운 AI’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부리는 똑똑한 AI 비서’로 만들고 싶다면, 나는 지금 학교 생활(또는 관심 분야)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도구로 다스리고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한 가지만 적어 봅시다.	
AI 의존형	“둘 사이에는 대화 기록만 있을 뿐 추억은 없었다. 추억이 없으니 상처도 없다. AI와 헤어지는 건 너무나 쉬웠다.” (216쪽)	AI 챗봇은 나와 싸우지도 않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지도 않지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손을 잡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친구와 다투고 서운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결국 그 오해를 풀고 다시 소중한 사이가 되었던 ‘현실 속 진짜 추억’의 장면을 떠올려 적어 봅시다.	
AI 회피형	“인터넷에서 봤거든. 채팅 앱에서 AI인 줄 알고 대화했는데 알고 보니 AI가 아니었다는 글이 올라왔었어. 상대방도 당연히 글쓴 사람을 AI로 생각했고.” “그럴 수가 있어?” “앱에서 그런 오류가 생기기도 한대. 만약 너도 오류 난 거면 상대방도 너를 AI로 생각하고 있겠지? 인터넷에 ‘루나 앱 오류’ 검색하면 글 여러 개 나와. (97쪽)	내 소중한 개인정보나 일기 같은 비밀이 AI 서버에 저장되어 해킹당하거나, AI가 거짓말(오류)을 가르쳐주어 피해를 볼까 봐 불안해서 AI 앱이나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멀리했던 경험이 있나요? 온라인 공간이 우리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 된 지금, 무작정 무서워하며 피하기만 하기보다, AI가 가진 위험성(유출, 오류)을 조심하면서도 편리한 기능만 쏙쏙 안전하게 골라 쓰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수칙’을 한 가지만 적어 봅시다. (예시: 비밀번호 자주 바꾸기, AI에게 내 진짜 이름이나 집 주소는 절대 말하지 않기, AI가 알려준 정보는 인터넷에 다시 검색해 확인하기 등)	